‘균일계 이온교환수지’ 생산영역 확보

삼양사 · 삼양화인테크놀로지, 군산 자유무역지역에 아시아 최대규모 공장 준공

연간 10억원정도 재정수입 · 7,000만불달러 이상 수출 예상

세계 이온교환수지 생산기업들이 고기능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차세대 이온교환 수지인 ‘균일계 이온교환수지’의 생산영역을 확보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삼양사와 일본 미쓰비시화학의 신설 합작법인인 (주)삼양화인테크놀로지가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이온교환수지 공장을 준공했다.

이온교환수지란 인체의 신장이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처럼 화학, 바이오, 반도체 제품 등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수지이다.

이 중 ‘균일계 이온교환수지’는 최근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이온교환수지로 일본 미쓰비스화학과 미국 다우 케미칼, 독일 란세스 등 전 세계 단 3개사만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단일공장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 2014년 9월 착공 이후 1년 7개월여만에 약 4만 9,500㎡(약1만5,000평)의 규모로 앞으로 약 1,000억원을 들여 연 2만톤의 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합작법인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삼양사와 미쓰비시화학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울산에 이온교환수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양사의 운영 노하우와 미쓰비시화학의 첨단 기술을 융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준공된 공장은 차세대 이온교환수지로 각광받고 있는 ‘균일계 이온교환수지’의 생산라인을 갖춘 공장으로서 이를 통해 전북은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 이온교환수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온교환수지는 반도체, LCD 등의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 생산과 원자력발전용 수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고 최근에는 정밀화학 촉매까지 그 용도가 확대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공장 준공으로 인해 100여명의 직·간접 고용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그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재산세 등 세금으로 인한 연간 10억원정도의 도 재정수입과 연간 7,000만불 이상의 수출이 예상됨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3개 회사만 가지고 있는 ‘균일계 이온교환수지’의 기술이 전북 및 국내에 이전됨에 따라 그에 따른 효과는 상상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양사 관계자는 “현재 이온교환수지를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공장준공으로 삼양화인테크놀러지에서의 이온교환수지 생산함에 따라 2018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와 5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 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준공식은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온교환수지 분야의 아시아 최대 공장이 들어서면서 군산자유무역지은 물론 인근 새만금 산단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박 대통령 “남은 임기 선거 민의 반영 변화 · 개혁 ”

“각계각층과 협력 · 소통 이뤄나가도록 각고의 노력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잘 반영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46개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 고비를 넘기면 또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각계각층과의 협력, 그리고 소통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임기와 관련해서는 “나라의 국정을 맡은 이후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제2의 도약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안보도 차분하게 챙기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으면서 해왔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기가 침체상태로 지속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국민들께서도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가 ‘3년의 개혁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룬다’ 그렇게 돼 있다”며 “우리가 하는 노력이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려움을 넘기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라는 것이 우리 혼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 교류를 통해서 지켜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 안보도 잘 챙길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성장동력을 꼭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도내 농가 농약 음독 잇따라

최근 영농철을 맞아 전북지역 농가에서 농약 음독사고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도내에서 모두 219건의 농약 등 약물중독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농약 등 약물에 중독된 환자들은 대부분 생명을 잃거나 신경이 마비되는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24일 오전 6시56분께 장수군 번암면 한 주택에서 A(72)씨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마신 농약은 제초제의 일종으로 독성이 강해 지난 2013년부터 생산이 금지된 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5일 오후 8시15분께는 정읍시 과교동 한 주택에서 B(65·여)씨가 제초제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남편과 다툰 뒤 신변을 비관에 집 안에 있던 농약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제초제 등 농약을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뿐더러 신체 일부가 마비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농약은 가급적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전주시 장애인 임산부 특성화 산부인과 협약식

김승수 전주시장은 26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장애인 임산부가 산전 진찰부터 분만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관내 산부인과 병원 5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임산부 특성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5면〉

전북 발전 협력 ‘공심회’ 창립 총회 개최

전북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과 대학·언론 등이 똘똘 뭉치기로 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주의 한 호텔에서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장 협의회인 ‘공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공심회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협력 추진 및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북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심회는 조봉성 전주매일신문 대표를 비롯한 언론사 관계자들과 국가기관·대학·연구기관·경제금융 단체·의료기관·사회단체 등 총 120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운영계획과 회칙·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한 심의·승인이 이뤄졌고, 공심회 회원들은 전북발전을 위해 협력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전북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과 토탈관광·탄소융복합산업·새만금 개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적 미래를 열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현대는 창조경제시대로 협업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개인은 물론 기관·단체간에도 경계를 없애고 협업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행자부, 새만금 산업단지 1 · 2공구 매립지 관할

군산시로 귀속 결정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됐다.

25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 이하 중분위)’는 2016년도 제2차 회의를 통해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이 지역 입주업체들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고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 신청을 통해 인근 시·군간 이견이 적은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군산시에 귀속했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 관할 결정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지리적 연접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립을 끝낸 구간의 행정구역을 우선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행자부 장관은 “의결 내용을 조만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에 불복하는 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주간(주말), 야간 면접 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부족한 점이 있다면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렴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치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옥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